

2015. 1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5.11.24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김명수, 송인덕, 박희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6	9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1	4	-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10월
교양	TV 기행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진행자섭외 적절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자섭외함	10월
기타	대전MBC 공익사업 “토요장터” 유종의미를 거두길	공익사업 “토요장터” 성황리에 마쳐	10월
교양	<..드리다> 맞춤법, 사용용례 유의하길	<...드리다> 사용용례 진행자교육 강화	10월
보도	뉴스데스크 과학기술 코너 눈에 띄어	요일별 기획코너 차별화, 특색있게 진행	10월
보도	서해 격렬비열도 의제 의미 있어	격렬비열도 등 사회의제 지속적으로 보도	10월
교양	시사플러스(탐사 프로그램)에서 소재 선정 의미 있어	시사플러스(탐사 프로그램)에서 소재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어	10월
교양	교양프로그램 호국보훈의 의미 다루는 소재 의미 있게	교양프로그램에서 꾸준히 다루고 있음	10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타는 장비 안전수칙 지켜야	개인이 타는 장비 안전수칙 설명	10월
보도	뉴스 게시판 활용 과학기술 분야 활애를	뉴스 게시판에서 다루고 있음	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테마기행 길 「소양호의 이야기 사진으로 담다」 편(11월 12일)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소양강 댐의 오랜 역사와 소양강 댐에서 살았던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곳곳 담아 가을로 접어드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고향사람들의 추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p> <p>소양호의 여러 마을은 뱃길로 이어져 있는데 이는 속세에 벗어나 요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와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자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마을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나뭇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댐 건설이후 수물민들이 보금자리를 옮겨 살아가는 모습은 자신의 고향의 추억을 이끌어내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소양호의 아름다움과 전통예술이 살아있는 예술농원, 가을빛 풍경과 잊혀가는 역사를 간직한 봉화산, 예술이 있고 사람냄새가 나는 산막골,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서 삶의 터전이 되어준 소양호, 천년의 역사와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청평사 등은 소양강 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인심의 마을사람들, 깊은 숲의 향기가 느껴져 보는 이들의 추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유도하기에 충분해 보인다.</p> <p>전문리포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터뷰를 응하는 사람들의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은 시청자들을 절로 웃음 짓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터뷰 내용이나 역사이야기 등을 설명할 때 자막을 포함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넣어주면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오덕성).</p>	<p><테마기행 길>은 민방소재 지역MBC 9개사가 공동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문화와 볼거리, 먹을 거리를 소개하는 기행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방송되고 있다.</p> <p>「소양호의 이야기 사진으로 담다」 편은 춘천MBC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특색과 정취를 기행다큐 형식으로 풀어내었다.</p> <p>프로그램을 맛깔나게 자막, 삽화 등 CG 자막을 보강하여 알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겠다.</p>	○		
편성	<p>건강플러스 「이상지질혈증」 편(11/21)편을 시청하였다. 먼저 올바른 바른 먹거리를 소개하는 건강밥상에서는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호박을 이용한 요리법에 대해 알려주어 여성 시청자들이나 요리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p>	<p>건강플러스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중장년층 이상의 시청자를 주 시청자로 설정하여 방송하고 있다.</p> <p>출연한 전문의에게 최대한 쉬운 용어와</p>	○		

	<p>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p> <p>요즘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검사지에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건강정보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이상을 나타내는 병명은 낯설고 어려운 단어로만 여겨왔지만 내분비내과의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p> <p>특히 전문의의 설명 중간에 사회자의 적절한 질문과 전문의의 긴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회자의 능력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문의의 설명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문의의 설명에 전문용어가 다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보여주거나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오덕성).</p>	<p>설명을 미리 당부하고, 사전에 협의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p> <p>순쉬운 이해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용례와 함께 상세한 해설을 위해 힘쓰겠다.</p>			
<p>보도</p>	<p>한때 tv 아침뉴스에서 여성 앵커의 얼굴 분장이 좀 과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8시 뉴스데스크의 여성 앵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여성 앵커의 얼굴 분장 톤이 전반적으로 밝은 편이다. 때로는 너무 하얗게 노출되다 보니까 시청하기에 부담스럽다.</p> <p>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 졌으면 좋겠다. 분장에 일관성이 요구된다.</p> <p>또 하나, 여성 앵커의 의상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익숙하게 보는 여성 앵커의 복장은 정장 차림이 아닐까 싶다. 중앙 방송사가 이런 모습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가끔씩 대전mbc 여성 앵커에게서 걸뚱을 걸치지 않은 원피스 차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역시 시청하기에 부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시청자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은 듯 느껴지기도 한다.</p> <p>그리고 또 하나, tv뉴스의 서막을 여는 헤드라인 뉴스는 비록 짧은 글이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히 전달돼야 한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 한 바 있었는데, 이 헤드라인 뉴스를 소개하는 여성 앵커의 목소리가 BGM에 파묻히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p> <p>자막이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시청자에게</p>	<p>대전MBC 뉴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감사드린다. 현재 여성 앵커 교체가 이뤄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만간 뉴스에 투입될 예정이다.</p> <p>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p>	○		

	<p>큰 어려움은 없지만 단순히 오디오만을 놓고 볼 때는 어떤 내용인지 가능할 수가 없다.</p> <p>그 날의 핵심 뉴스를 소개하는 몇 줄의 글이지만 앵커의 음성은 제대로 들려야 한다. 녹음 과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김학선).</p>			
<p>편성</p>	<p>아직도 많은 이들이 채소와 야채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 듯싶다.</p> <p>채소와 야채의 뜻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야채는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 채소와 같은 뜻.</p> <p>채소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는 식용한다라고 설명하고 동의어로는 남새, 야채라고 한다. 즉, 뜻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야채는 우리말이 아니다. 야채는 채소의 일본식 표기다. 그러니 우리는 야채라는 말 대신 채소라는 말을 써야 한다. 방송의 자막 등 서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다 채소로 바뀌었는데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p> <p>계속 야채라는 말을 써 오다가 채소로 바꾸어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씩 의식해서라도 채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방송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김학선).</p>	<p>야채와 채소에 대한 바른 사용에 대하여 진행자와 출연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겠다.</p> <p>정기적인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지하여 숙지토록하고 있다.</p>	○	
<p>편성</p>	<p>허참의 토크&조이(11/6) ‘가수 박상철’ 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토크&조이에서는 노래방 애창곡 무작정의 주인공이자 전국노래자랑이 배출한 인기 트롯트 가수 박상철을 초대하여 인생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p> <p>또한 전체 이야기 구성을 살펴보면 주인공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간단한 근황 이야기와 어렸을 적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된 사연, 가수의 꿈을 품고 일용잡부에서 노숙자로, 노숙자에서 미용사로 생업에 종사하며 노래하는 미용사로 꿈을 키워나간 이야기, 1993년 가까워진 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국노래자랑 삼척편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야기, 그후 1주일마다 서울에 올라가 7년의 연습을 통해 드디어 음반을 내고 음반히트와 더불어 인기 트로트 가수가 된 이야기 등등으로 흥미진진하게 잘 구성하였다고 생각한다.</p> <p>그리고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p>	<p>허참의 토크&조이는 시청자들에게 알려 인생의 남다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초대손님, 혹은 이미 유명인이기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토크 프로그램이다.</p> <p>박상철은 인기가수로 성장하기까지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온 모범적인 가수이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녹화 때 담았고, 제작진도 그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소개하기위해 고민했다.</p> <p>앞으로 더 좋은 초대손님들과 함께 진솔하고, 인생의 향기가 묻어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겠다.</p>	○	

	<p>초대자라 그런지 전체적인 이야기와 이야기에 대한 몰입도 또한 좋았다고 본다. 또한 자기가 살아온 주변 이야기와 사연이 다 작곡의 대상이고,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에 일을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금은 힘들었던 시절의 경험들이 큰 자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시청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한다.</p> <p>요즘 희자되고 있는 말 중에 N포세대, 금수저 계급론이 있다.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청년세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N포세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빗댄 말 금수저 계급론을 말한다.</p> <p>저성장속에 학자금 대출부터 취업난 고민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N포세대와 금수저 계급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가수 박상철은 좋은 사례의 초대자로 본다(장백기).</p>			
<p>편성</p>	<p>상록수의 작가 심훈의 생애를 재조명한 라디오 다큐드라마 '상록수'를 11월 5일, 6일 대전MBC라디오에서 2부작에 걸쳐 방송했다.</p> <p>상록수는 올해로 80주년, 작가 심훈은 내년이 사망한지 80주년을 맞는다.</p> <p>흔히 심훈은 「상록수」의 작가, 「그날이 오면」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훈은 거기에 더하여 열혈 독립운동가였고,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에 대한 열정을 자신의 소설과 시로 표출한 항일 문학운동가이기도 하였다.</p> <p>우리에게 심훈보다 잘 알려진 상록수는 1935년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장편소설 특별공모 당선작으로,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우리나라 농촌의 참상을 보여주고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하는 양심적 지식인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p> <p>이번 심훈의 상록수 탄생 80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상록수 2부작은 일제강점기 심훈의 저항정신과 청년정신을 재조명하고 일제강점기 농촌을 일깨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젊은 청년들의 삶을 소설과 시로서 표출했던 이야기를 잘 그려냈다.</p> <p>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심훈 현지 아들의 생생한 증언과 소설 상록수의 원형이 영화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은 새로웠다.</p> <p>그리고 농촌을 일깨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젊은 청년들과 심훈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p>	<p>심훈선생이 <상록수>에서 이야기했던 살려내야 할 우리 민족의 정신은 [청년정신]이다. 이러한 기본을 바탕으로, 어떻게 심훈선생은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가를 탐구한 다큐멘터리가 '상록수'이다.</p> <p>라디오 다큐멘터리로는 드물게 해외취재까지 다녀오는 등, 철저한 자료고증과 심훈 선생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의 소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p> <p>민족의 선각자였던 심훈선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한다.</p>	<p>○</p>	

	왔고, 국가관 역사관이 많이 부족한 현재의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는 사명감을 일깨워 준 특집방송이 되었다고 본다(장백기).			
편성	토크 앤 조이(11/24)에서 대한민국 여성한의학박사 1호인 산부인과 명의 강명자 박사가 출연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생활태도와 불임의 원인을 짚어주었고 어려운 임신은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폐경 후에도 임신, 54세에 임신 등의 사례가 그 예이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을 하고 싶어도 난임,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단비같은 초대손님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시의적절한 섭외였다고 본다(한찬희).	강명자 원장은 여성으로 한의학의 새로운 장점을 부각시킨 의지의 인물이다. 앞으로 이와 같이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초대손님을 많이 모셔, 공익적인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거듭 나겠다	○	
편성	생방송 아침이 좋다 후반부에서는 시청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진행자가 태블릿 PC를 들고 사연을 읽어주고 있는데 화면은 진행자 얼굴만 나온다. 사연을 읽어줄 때 사연주제에 걸맞는 영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사연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진행자 얼굴 보다는 일반 다른 영상물로 사연처리를 하면 좋겠다(김형주).	문자소개는 청취자와의 소통을 의미하는 코너이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코너 진행이 다채로움을 줄 수도 있으나, 청취자의 사연을 보다 정감있게 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진행 상황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를 집중 모니터하였다. 주중에는 12분에서 16분, 주말은 6분에서 10분 정도 로컬 뉴스로 구성되었다. 주중 뉴스를 분석해 보니 기자리포트 건수가 5개, 현장리포트 건수가 1건, 데스크 리포트 건수가 4-6건 정도였고 이에 반해 주말은 기자리포트 수가 2-3건 데스크 리포트 건수가 4-6건 이었다. 전반적으로 현장 리포트 건수가 너무 없다. 신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타 방송사 박대기 기자가 “눈 내린 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대전MBC의 데스크 리포트 건수가 전체 뉴스의 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앵커 비중이 크다. 현장기자의 생생한 현장 리포트 기사를 늘려주기를 바란다(김형주).	뉴스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성 있는 뉴스를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보도	기자의 톤이 현장에서의 톤과 스튜디오에서의 톤 레벨이 차이가 나서 지적을 하였었다. 이제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뉴스멘트를 쭉쭉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스튜디오와 현장에서의 발음 톤이 균형 있게 되도록	리포트 시 현장 톤과 녹음 톤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편집 시 오디오 레벨을 조정하고 있다. 각 기자가 더욱 유념해 고품질 뉴스를 제작하는 데 더욱 유념하겠다.	○	

	<p>록 꾸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김형주).</p>			
<p>편성</p>	<p><아침이 좋다> 문자메시지 받는 코너의 주제가 “추워도 괜찮아! 겨울이 좋은 이유”이었다. 시청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좋았다. 사연들이 따뜻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들이라 시청하는데 편했다. 주제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코너라고 본다.</p> <p><아침이 좋다>에서 다문화가정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은 늘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문화,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는 결국 함께 사는 나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일조를 한다. IS테러 사건을 접하면서 더욱 느낀다(유덕순).</p>	<p>문자메시지를 아침에 시청자와 교감하는 것은 주제를 놓고 시청자와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성격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다각적 접근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도록 하겠다.</p>	○	
<p>보도</p>	<p>수능이 끝났다. 수능이 끝나면 언론매체도 그러하지만 입시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점수에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중요한 내용이다. 한편으로 좋은 대학 못지않게 어떻게 진학할 것인가도 중요하다.</p> <p>좋은 대학으로서 서열 보다는 자신의 적성, 직능에 맞추어 적합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획뉴스를 제작하면 어떨까?</p> <p>지역대학도 경쟁력 있는 학과가 있다. 이를 소개했으면 한다(오덕성)</p>	<p>현재 담당자를 지정해 관련 기획뉴스를 준비 중으로 조만간 시청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요청드린다.</p>	○	
<p>보도</p>	<p>다문화가정을 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IS 파리 테러 사건으로 더욱 확인할 수 있다. 방송에서도 꾸준히 다루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잘 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다문화가정의 며느리가 소개되었다면 카이스트의 유명 교수, 똑똑한 연구단지의 연구원 등도 만나볼 수 있다.</p> <p>독일에서 베트남 아이를 입양하여 그 베트남 아이가 독일정부의 각료가 된 사례도 있다. 잘 된 케이스를 소개하면 다문화가정에서도 긍지를 더욱 가질 수 있다고 본다(오덕성).</p>	<p>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지적하신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다문화=수혜’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기획뉴스를 추진하겠다.</p>	○	
<p>보도</p>	<p>시사광장에서 “다문화사회 10년”(11/22)을 다루었다.</p> <p>최근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테러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p>	<p>우리사회에게 다문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번 토론이 기획되었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현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의 초점은 우</p>	○	

	<p>이미 온라인 댓글 등에서는 일부 종교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p> <p>다만, 출연진들의 면면을 보면 이미 다문화화를 인정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 같다.</p> <p>이 부분에 대해 과연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정책의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너무 쉽게 논의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p> <p>정, 반, 합의 논리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좀더 세밀하게 있었으면 했다(성정모).</p>	<p>리사회의 일부분이 된 다문화화를 기존 문화와 어떻게 융화시키고 정책적 오류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맞춰졌다. 이 점 헤아려 주길 바란다.</p>			
<p>편성</p>	<p>시사플러스 “모든 복지는 중앙정부로 통한다?” (11/11)편을 시청하였다.</p> <p>최근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의 일부를 폐지 혹은 변경하라 권고 했고 그로 인해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으로 1조원의 복지 예산과 645만 명의 소외계층이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한 논의였다.</p> <p>이 부분 논의는 무척 걱정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와 패자가 승자로 될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p> <p>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정비 자체는 필요한 것 같다. 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 복지 예산을 따서 부를 증식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뉴스거리로 흘러나온다.</p> <p>결국은 판별의 문제인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솔직히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성정모).</p>	<p>복지부문은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회 각층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다.</p> <p>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 균형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p>	

